

통일을 사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이것을 속단하여 타협자(妥協者)로 규정하고 비방하는 것도 삼가야 하고, 정화를 찾는 것도 귀한 일이니 그런 열심있는 이들을 오해하여 분열자(分裂者)로 일러 규정하고 비평을 앞세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만 통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양심적으로 비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을 것을 확실히 보장하고 행동을 취하여야 된다는 것이요.

정화를 찾는 이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최가능(最可能)한 건덕을 소유해달라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장차 나타날 결과를 분명히 예측할찌니 거기에 대하여 확신이 없이는 동하거나 정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시험도 이겨야 되겠고 오해도 경계해야 하겠다. (구고에서)

오늘의 성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칼빈의 現代的 意義 (上)

박 형 룡

오는 5월 27일은 우리 장로교의 원조인 칼빈선생의 서거 400주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본호에는 박형룡박사와 김희보목사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학지남 1962년 제29권 1호 참고>

— 편집실 주 —

16세기 宗教改革時代에 대 개혁자이며 大神學者인 존 칼빈이 해설한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적인 여러 문제들은 거의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개혁시대의 칼빈사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력과 지도를 찾으려는 사상가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부자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칼빈의 현대적 의의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0세기 중엽은 칼빈사상에 대한 관심이 부흥된 때다. 칼빈의 탄생 400주년인 1909년의 기념할만한 해 이후에 칼빈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제2차대전 이전에 칼빈에 대한 관심의 부흥기는 이미 왔던 것이다. 1939년 미국에서 基督教綱要撰을 편집하여 간행하는 인사는 서언에서 말하되 「근년에 이르되 보통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사조의 부흥이 일어났다」(Hugh Thomson Kerr,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39, preface) 다음해 同國에서 「칼빈

주의」를 저술하여 간행하는 인사도 서언중에 말하되 “본서는 마침 부흥되는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과 때를 같이하여 시의(時宜)를 얻은 감이었다.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은 현대신학의 특징이다”(A. Dakin : “Calvinism,” 1940, preface).

이 부흥의 표시로 칼빈에 대한 글과 칼빈이 지은 글을 많이 읽게 되었다. 말하자면 칼빈의 傳記가 많이 출판되었고 그의 저서가 또한 그리 되어 많은 사람들의 애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말하면 헝가리에서는 기독교강요 1536년판의 번역이 나왔고 불란서에서는 새로운 번역이 간행되었고 독일에서도 新譯이 출판되었다. 화란에서는 개혁교회가 각종 칼빈에 관한 敎本 대중적인 平易한 주해 및 상당수의 역사적 서적을 간행하고 독일과 불란서의 학자들도 칼빈의 각 방면의 저서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전기와 같은 칼빈사상에 대한 관심의 부흥은 부분적으로 칼 바트의 서적들과 신학적 영향에 기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트와 그의 학파의 사상이 많은 점에서 칼빈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칼빈주의 세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한다. 바트 자신에게서와 그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에 많은 근본적인 특징들이 현대적으로 전개되어 찬의와 존경을 받게 되며 따라서 그것들은 기독교적 사유(思惟)에 대해서 항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한다(Dakin : op. cit. ch. XV), 또 바트신학을 현대주의와 정통주의를 좌우로 배경하면서 자체는 개혁신앙의 회복이라고 자칭함도 사실이다. 심지어 바트신학을 <신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바트신학을 개혁신학의 회복으로 보는 데는 무시할 수 없는 이의가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는 분명히 칼빈이 그의 기독교 원리의 기초를 삼은 그것과는 별개문제이다」(Wilhelm Pauk : “Karl Barth prophet of new Christianity? 1931). 그의 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트는 전통적이며 교회적인 칼빈주의를 기각하고, 칼빈의 모든 교훈과 교회정치와 윤리를 모두 유지하는(특히 장로교파에서와 같이) 칼빈주의도 배척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수여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였다. 그

러나 바트신학이 칼빈의 신학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용하므로, 알미니안주의에 호의를 표하는 近代自由主義 神學에 다소의 타격을 줄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신학이 비록 칼빈주의를 그대로 지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근년 기독교에 칼빈에 대한 관심의 부흥이 있다면, 그리하여 칼빈의 현대적 의의를 깊어지게 하였다면, 그것은 시대의 사상적 빈궁이 일으킨 요구에 응함이라고 말함이 보다 더 원만할 것이다. <계속>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좋은 표본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찬양의 성질을(의미) 잘 나타냈다고 하겠다. 찬양을 돌리되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간절한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부르는 사람에게서 진실된 신앙의 찬미가 나올리도 없거니와 가령 찬미가 나온다 해도 감동이나 감사의 감격은 물론 없겠고 은혜스럽지도 못할 것이다. 즉 찬양의 참 뜻이 없는 빈 소리에 불과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가는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중심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을 드릴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온갖 성의를 모아서 조심스럽게 드려야 할 것이다. <필자·총회신학교강사>

칼빈의 現代的意義 (下)

朴 享 龍

신학교리의 방면에서 볼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칼빈주의 신조들을 형성한 원리들에 기초하였고 그후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조 혹은 신학문서들이 이 원리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두렵건대 많이 뒤집어진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니 대개 어느 방면을 드려다 보든지 낡은 신도개요들과 교리 표준들로부터 표류하여 떠나감이 있어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최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의 칭호아래 오는 바를 주장하며 가르치고 칼빈주의는 「낡아빠지고 노폐(老廢)한 신조」라고 공개적으로 단언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도 유행하는 이 태도와 현대 종교생활의 그렇게도 큰 부분을 형성하는 완만(緩慢)한 사고 및 천박한 추리 때문에 우리의 논제는 가능한 최대의 중요한 논제가 된다”(Warburton: “Calvinism,” 1955. p. 12), 이는 현대 신학계에 알미니안주의가 성행하므로 칼빈신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함이다.

윤리사상의 방면에서 볼때 칼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것을 생의 최고목적으로 삼았다. 인생보다 하나님을 사교의 중심에 두며 생활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조절될 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주의가 현대인의 감정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이점에 서며 따라

서 현대적 의의를 크게 가진도 이 점일 것이다.

18세기의 복음주의적 부흥과 루소의 낭만주의의 이래의 우리는 개인의 선이건 전체사회의 개혁이건 주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다. 인생의 현실적 요구가 소위 윤리적 행동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점점 순전히 물질적 행복에 관한 것이되었다.

인본주의시대가 온 것이다. 순전한 인본주의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를 보지 못하는 금일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엄격한 규율은 극히 필요한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과의 고나계에서 사는 생활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A. Dakin : op, cit, ch. XII).

벨코프(L. Berkhof) 교수는 정기와 유사한 견해를 더욱 유력히 진술하였다. 사상계에 점진적으로 主掌權을 얻은 문예부흥의 원리는 종교생활을 회생시켜서라도 세속생활을 역설함이다. 특히 지나간 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연세력을 발견하여 인생의 자연생활에 이용함에 크게 진보하였다. 그 결과로 사람은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여 자기로 하나님을 삼고 말았다.

그리는 동안에 도덕과 정신생활의 발전은 침체되어 인류사회의 많은 층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잃어 버리게 되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용소(容所)가 없어졌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젠 자기의 발견한 것들을 무서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自統治은 이제와서 절망적인 혼란과 실패로 끝나치고 말았다.

고로 이런 때야말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의 지도에 순종하기를 배우며 그의 聖號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이다. 「근년에 들고 읽는 대로 칼빈주의가 부흥됨에 따라 여러 층에서 위대한 제네바 개혁자의 남겨놓은 교훈에 다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칼빈주의의 원리는 개혁당시에 보다 금일에 더 필요하다. 「고로 우리는 칼빈주의 재 강조를 기뻐하는 바이다」 (H. Henry Meeter :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1939, Fareword To the Second Edition" 박윤선 김진홍 공역)

헨리·미터는 전단에 인용된 그의 저서의 서언중에 칼빈주의의 현대적의의를 사회적 사상의 관점에서 말하였다. 「오늘날은 인류가 어떤 사상체계를 갈망하고 있다. 이 체계는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그것을 더 고귀한 통일에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고귀한 통일이란 것은 인류의 각 성원인 개인에게 최대량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전체에게는 원만한 공의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이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되는 때에 위에 말한 것 같은 思想體系가 올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들의 올바른 관계에 착근한 때에만 그들의 요구가 다 적당하게 만족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칼빈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여 준 위대한 사상이다.

近年의 社會狀態는 도리어 칼빈의 이상을 부흥하게 하는 경향이고 칼빈시대에 당신의 社會改良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일을 금일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새롭게 가진다.

이런 몇가지 이유로 현대의 교회와 사회는 칼빈사상의 부흥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칼빈의 現代的意義는 매우 밝히 들어나고 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신도들은 칼빈주의 신학의 감화 아래서 신앙생활로 살아온 것이다. 이들이 이 신학의 분위기 속에 영적 호흡과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 이 백성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금일 세계적인 思想的混亂의 선풍은 이 땅에도 불어온지 오래되어 진정한 칼빈주의에 배치하는 세력은 교계를 휩쓸고 있으며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이리하여 금일 우리 앞에도 칼빈사상의 연구와 전파에 새로운 노력을 요구하는 情狀이 나타났다. 또 칼빈주의에 관한 역서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